

濟州島·沖繩 地域史에 관한 比較史 試論

秦 榮 一

目 次

- | | |
|------|---------------|
| I. | 머리말 |
| II. | 兩地域의 自然環境과 歷史 |
| III. | 兩地域의 歷史運動의 特性 |
| IV. | 兩地域의 時代區分 問題 |
| V. | 맺음말 |

I. 머 리 말

이 글의 목적과 동기는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두 지방사를 비교 검토하여 제주도의 역사운동을 고찰하는 데에 일조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필자의 생각은, 본도 역사연구과정에서 본도지역 거주자이거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우리가 속한 시대와 장소에 규정되어 우리들의 특정한 신념, 가치의 식이든지 심지어 편견을 역사연구에 투영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사이거나 국사연구에 투사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편견을 어느 정도로 극복하여 보다 넓은 역사이해의地平을 넓으로써 일지방인들이 밝아 온 지난 자취를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자세로 접근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 본 연구는 1989년도 대학자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이 글은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역사를 비교,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주도 역사연구자의 인식들에 대한 일정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제주역사 이해에 다른 어떤 地平은 없을가 하는 시론적 탐색을 주안점으로 삼고자 한다. 부언하자면,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편당적인 인물로 만들어 우리를 허위 속으로 말려들게 하는 마음의 경향이라 할 偶像들을 경계하여, 그 이상숭배에 빠져들지 말자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고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선학, 선배들이 본도 역사에 관하여 많은 양질의 논문과 저서들을 남겨서, 그 공적에 의한 본도 역사 이해를 심화시켰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줄문에서 그 업적들에서 옥의 티이거나 천려일실의 落穗 하나라도 주울 수 있었으면 생각한다.

비교사에는 廣域比較와 狹域比較가 있다. 광역비교는 서로 다른 배경조건이 결과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예를 들면 그리이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건축양식(엔타시스)이 나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문화전파의 결과냐, 또는 인간의 審美的 認知의 유사성의 예증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¹⁾ 협역비교는 상호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사회들, 상호 영향을 받는 사회들간의 비교이다. 협역 비교사는 각 사회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협역 비교사의 대상은 문화적 동질사회 즉, 전체적으로 보아 전통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문화권을 이루고 있고 그 구성 성분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²⁾

본도와 오키나와 양지역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아 동북 아시아의 대문화권의 두 구성성분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사회라는 점에서 협역 비교사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양지역의 역사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 저서들을 하나하나씩 비교 검토하여 그 전체적 역사상을 구성하

1) 車河淳, “比較史는 왜 필요한가” 《韓國史 市民講座》 4, 一潮閣, 1989, p.208.

2) 앞 논문, p.209.

고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그런 작업수행은 필자의 능력밖의 일임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양지역의 通史類의 역사책을 토대로 하여,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양지역 역사의 독특한 경향과 운동을 상호 비교 지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글은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양지역 역사를 논의하겠다. 하나는 역사의 시대구분 문제이다. 역사적 사회운동의 전체상을 추구하려는 한, 시대구분은 그것의 가장 집약화된 결론적인 이해를 보이는 것이다. 우선 시대구분론이 논의되고 있는 오키나와의 경우를 소개하고 필자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본도역사의 각 시대적 매듭을 찾는 데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주제는 양지역의 역사운동의 방향과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상위점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이다. 양쪽은 둘다 동북 아시아에 위치하여, 또 섬들이란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하였으나, 그것들은 그 사회조직의 원리와 운영 및 시대발전의 時差에서 커다란 차이를 갖게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찰시기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韓日合併의 해인 1910년을,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琉球藩이 폐지되고 오키나와縣이 설치된 1879년을 각각 그 下限線으로 잡았다.

본고는 양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개설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母集團의 문명에서 상당히 떨어진 변경 도서들인 양지역 역사에 관하여 독자의 예비지식이 없는 경우를 예상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실제로 이런 예비지식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후 이글의 어떤 논의도 무의미할 것이 자명하므로 독자 제위의 양해를 구한다.

II. 兩地域의 自然環境과 歷史

오키나와의 자연환경과 그 역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류우큐(琉球, 오키나와의 古名) 列島는 日本九州와 台灣간에 산재한 섬들이며, 대략 北緯

27도 선을 경계로 흩어져 있다. 그 중요한 섬들은 (1) 다네가시마(種子島), 야쿠시마(屋久島)들로서 현재 카고시마(鹿兒島)縣에 속하는 섬들, (2) 오키나와시마(沖繩島)를 중심한 오키나아群島, (3) 미야코시마(宮古島)를 중심한 미야코군도와 (4) 이시카기시마(石垣島), 이리오모테시마(西表島)를 중심으로 한 야에야마(八重山)군도로 구성되어 있다.³⁾

60여 도로 이루어진 오키나와 열도의 총면적은 2,388km²이다. 그중에 오키나와섬이 전면적의 약 53%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이리오모테 섬과 이시카기 섬이 각각 13%와 11%가 되며, 그 나머지 작은 섬들이 20% 정도이다.⁴⁾

현재 인구는 120만명에 달했으며, 그 인구밀도는 1970년 國勢調査에 의하면 평균 411명, 나하시(那覇市)가 7,760명으로 비상하게 높다. 게다가 나하시를 포함한 오키나와 중심지역에 쏠오키나와 인구의 64%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⁵⁾

오키나와縣의 기후는 亞熱帶에 속한다. 나하시에서 한달 평균기온은 4~11월의 8개월간 섭씨 20도 이상이며, 12~3월의 겨울철에도 16도 이상이다. 강수량은 연평균 2,000mm 정도로 높으며, 습도 또한 높다.⁶⁾

오키나와 역사를 앞서 인용한 新里惠二들의 공저인 《沖繩の歴史》에 의하면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이하 오키나와 역사 개설은 별다른 주석이 없는 한 이 책에 의거함을 밝혀둔다)

오키나와 역사와 일본본토의 그것을 비교할 때, 그 현저한 특색은 그 역사진행의 시대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역사는 일본본토에 비해서 그 출발점은 대략 10세기 내지 6세기 정도, 평균해서 약 8세기쯤 뒤쳐졌다. 이런 시간적인 격차의 원인은 철기 도래와 보급이 본토에 비해 훨씬 늦게 시작되었던 데서 구해지고 있다. 즉 일본본토가 대륙문화의 영향하에 철기사용을 동반하는 야요이(彌生)식 문화를 발달시킬 무렵에 오키나와는

3) 新里惠二·田港潮昭·金城正篤, 《沖繩縣の歴史》, 山川出版社, 1989, p.2.

4) 앞 책, p.4.

5) 앞 책, pp.4~7.

6) 앞 책, pp.7~8.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전권 밖에 처져서 이때부터 양자 간에 문화적 격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기 보급이 늦었기 때문에 생산력과 역사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0세기경의 일본본토와의 교통을 의미하는 수에키(須惠器)가 광범위하게 출토되는 것을 보면, 오키나와 사회는 10세기 전후에 역사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갖춘 것 같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추정되는 구수쿠(城)시대는 철기, 水稻 경작과 牛馬 사육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9세기경부터 촌락공동체 내부에서 계급분화가 진전되었으며, 11세기말에는 오키나와 각지에 아지(按司)라고 불리우는 族長的인 지배층이 발생하였다. 아지들은 서로 항쟁하면서도 점차로 결합하여, 14세기 중엽의 오키나와 본도에는 中山·北山·南山이라는 세 개의 국가들이 성립했다. 이들 三山은 중국의 明에 '臣'이라 칭하며 入貢하여, 중국과의 공식적인 외교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오키나와 사회발전의 行歩가 매우 급격하게 되었다.

오키나와 동남부 사시키(佐敷)의 아지였던 쇼하시(尚巴志)가 15세기초에 三山을 차례로 멸망시켜 슈리(首里)에 통일정권을 세웠다(第一尚氏). 그러나 그의 財務官이었던 카나마루(金丸)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쇼하시를 제거하고 자신을 쇼엔(尚円)왕이라 칭하였다(第二尚氏). 第二尚氏 왕조는 그 후에 明治 정부에 廢藩置縣되어 없어질 때까지 19대 409년동안 류큐 제도에 장구하게 군림해 왔다(1469-1879).

第二尚氏의 3대왕인 쇼신(尚眞) 치세동안에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가 오키나와에 확립되었다(1477-1526). 즉 王都인 首里에 강력한 중앙정부가 출현하여,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아지들을 首里에 집중시켜 전도 통치를 강화했다. 身分, 位階制와 통치기구가 정돈 정비되었다. 제4대 쇼세이(尚清)왕은 북으로 아마미(奄美)섬으로부터 남쪽 미야코(宮古), 야에야마(八重山)제도까지 그 영토로 하는 류큐왕국을 창건했다.

이 해양 소왕국은 14세기 이래로 일본·중국·조선뿐만이 아니라, 삼·팔렘방·말다카 등의 남방제도까지 활발하게 교역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포르투갈의 동방진출, 중국 상인의 남해무역 및 일본 상인의 남방무역이 개시되자, 오키나와 해상활동은 그들에게 눌려서 점차 약화되다가 16세

기 중반에 중단되었다. 그후로는 오키나와 무역은 오직 중국과의 朝貢 무역만을 행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번창한 것이었다.

사쓰마번(薩摩藩) 시마즈(島津)氏は 1609년에 류큐왕국을 정복하고, 오키나와 왕과 重臣에게 복종과 충성의 맹세를 받았다. 이때에 아마미제도는 사쓰마에 할양되고, 오키나와 이남의 섬들만이 尚氏의 지배에 남게 되었다. 島津氏의 류큐침공 이후에 오키나와의 정치적인 지위는 자주 '日支兩屬'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역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쓰마와의 관계는 지배·피지배의 그것으로 일일이 정치상의 감시 간섭을 받은 반면에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事大之禮'로서 朝貢이라는 外形에 의한 무역이었고 정치적인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류큐왕국은 島津氏의 침공 이후 280년동안 중국무역의 이익을 사쓰마 번에 빼앗기고, 민중은 사쓰마 번과 首里王府의 이중 수탈과 가혹한 지배 밑에서 헐떡이다가 明治維新을 맞이했다(1863). 그후 류큐국왕인 쇼타이(尚泰)가 일본정부에 의해 '琉球藩王'에 최후로 봉해졌다(1872). 그러나 明治정부는 1879년 군대를 출동시켜 왕족과 상층 士族의 저항을 억압하면서 류큐 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여 직접 일본중앙정부의 관할아래 두었다(1879). 이렇게하여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와 더불어 유구한 역사전통을 가졌던 류큐왕국은 역사로부터 사라졌다.

濟州島는 한반도의 남단의 목포·완도·부산으로부터 각각 140km, 90km, 300km 떨어져 있는 남해상에 고립한 큰 섬이다(면적 1,820km, 주위 253km). 또한 본도는 일본의 福岡과 중국의 上海로부터 각각 352km 와 528km 거리에 있으며, 중국대륙과 일본의 대략 중심점에 있어 정치지리적인 관점에 도 兵站基地的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런 위치의 본도는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九州·琉球, 중국의 江蘇·浙江 지방 및 安南과 더불어 서로 교역·표류 그리고 주민이동을 가져 왔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이 나라들의 선박이 본도에 빈번하게 표착하고 있었다.⁷⁾

7) 표류인에 관한 기록과 정리로는, 김봉욱, <제주통사>, pp.116~123을 참조.

본도의 자연환경을 보면, 우선 降雨量은 1,400~1,600_{mm} 내외로, 오키나와의 2,000_{mm}보다는 적은 편이다. 본도의 기온은 겨울 1월의 4.8도, 여름 8월의 25.8도로서 연평균 14.7도(제주시)이며, 오키나와의 1월 16.1도, 8월 27.4도, 연평균 22⁸⁾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온난한 편이다.

이글에서 본도 역사개설은 서술체제상에서 단순히 정돈된 外形에 기준해서 金泰能, 《濟州島略史》(日譯版, 新幹社, 1988)에 의거한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문제여지가 많다고 생각되는 제1장 '州胡人時代: 고루보구인'과 제2장 '上古時代의 濟州'를 빼고, 그 대신에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4, pp. 11~45)을 채택하겠다. 물론 그외에는 金泰能의 저서를 요약하겠다.

상술한 논문에서 全京秀는 三姓神話를 耽羅部族神話로 새로이 인식하여야 한다면 이 신화의 기간내용을 父系血統 구조를 갖고 있는 씨족들간의 씨족연합에 의한 부족사회 또는 酋長社會의 형성배경과, 탐라부족을 형성한 이후 외부세력과 혼인동맹에 의한 보다 복잡한 부족적 편제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배경을 그린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본도에 최초로 발생한 탐라부족사회는 역사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에 일반적인 수렵경제사회였으며, 또한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채택하는 평등적 사회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는 시사를 한다.

三神人으로 구성된 탐라부족은 해양세계와 연결관계를 갖고, 그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다(三神人和 三處子 집단, 즉 碧浪부족과의 혼인동맹). 또한 그 구조적 변화의 경제적 양상은 수렵체집경제로부터 정착농경의 생산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당시의 탐라사회는 동아시아의 해양계(동지나-황해-발해만)의 일원으로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맥락에서 櫛文土器文化의 배경을 가진 자체적인 신석기 문화를 건설하고 있었다고 상정된다.

본도의 청동기와 철기시대는 無文土器를 배경으로 하였으나 그 연대의 시작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수용과 내부 축적에 의해 토

8) 新里惠二들, 앞 책, p.7.

착화를 완결한 '濟州島式 無文土器'와 '제주도식 支石墓'는 이 시대의 탐라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전경수는 주장한다.

탐라왕은 백제 文周王 2년(476)에 사절을 백제에 보내서 臣事했고, 백제로부터 佐平(一品大臣)을 받고 신속했다. 그런데 20년후에 백제 東城王은 군대를 동원하여 탐라 정복을 위해 武珍州(光州)에 이르렀다. 탐라왕은 이것을 알자 급히 사자를 보내 사죄하고 속국의 예를 지킬 것을 맹세했다(498). 이 사건은 탐라가 백제에 공물상납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

탐라왕국은 고구려와도 백제 東城王때 정치적 피보호 관계수립 이전에는 서로 장거리 교역을 하고 있었다. 당시 본도 산출의 교역품목으로 '珂'라는 물품이 있었다.

탐라왕국은 '新羅盛時'에 신라에 入朝하였다고 한다. 이 입조시기는 신라가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 文武王 초기부터 동왕 15년 사이로 보인다(661~676).⁹⁾ 그리고 文武王 2년(662)에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이 신라에 항복하여 왔다는 기사가 사서에 보인다. 탐라왕은 이때에 구관직인 佐平을 다시 받고, 이후에 신라에 복속하게 되었다.

탐라왕국은 日本과도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하여, 661년 양자간에 처음으로 통교가 있는 이래 수차에 걸쳐 탐라 사절이 일본에 파견되고 있었다. 특히 탐라사절의 파견시가 백제멸망 다음 해부터 시작되고 있음에 주목된다. 이것은 일본에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했거나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생각된다.¹⁰⁾

탐라 상선들이 중국 唐의 廣州까지 기항하여 무역하였다는 중국측의 기록이 있다. 그래서 唐의 麟德 연간(663-664)에 탐라 족장이 입조하여 唐帝를 수행하여 泰山에서 거행된 天祭를 참관하고 귀국하고 있었다.

상술한 제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上古 탐라는 중국의 화북·강남지방·황해·한반도의 남해안과 일본 九州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에 활발

9) 제주도문화공보실편, 《濟州道誌》(上), 제1편 역사, p.45.

10) 箕敏生, "耽羅王權과 日本", 《耽羅文化》10, pp.259~273.

하게 참여하고 있었음이다. 탐라는 上古시대에는 하나의 해양왕국의 성격을 띠었으며, 그것은 고려 이후에 한반도에 속박·편제되고, 한 주변 도서로서 그 존재와는 그 역사적 상황을 크게 달리했다는 것이다.

高麗王朝는 다시 한반도를 통일하자 탐라왕국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內地編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고려 太祖는 탐라왕의 '王' 칭호를 삭제하였으며, 成宗 10년(1105)에 '毛羅'라는 본도 國號가 폐지됨과 동시에 郡制가 실시되었다. 이때에 유구한 연월과 역사전통의 탐라왕국은 해체되어 고려의 일개 郡이 되어버렸다.

탐라는 高宗代(1214-1259)에 '濟州'로 개칭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본도 호칭이 되었다. 고려 정부는 元宗 11년(1170)에 30여년간의 對蒙 전쟁을 끝내고 元과 강화를 맺었다. 이때에 고려를 백년간 실제로 지배해온 武人 정권이 전복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三別抄가 江都에서 반란을 일으켜 珍島를 거쳐 본도에 들어와서 賣日村 缸破頭里를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삼았다. 麗蒙연합군은 元宗 14년(1273)에 본도에 상륙하여 三別抄 군대를 궤멸시켰고, 고려군 천명과 몽고병 400명을 주둔시켜, 실제로 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元은 忠烈王 元年(1275)에 濟州를 다시 탐라국이라 칭하고 고려로부터 분리하여 元에 예속시켰다. 그후 元은 탐라를 일시 고려에 반환한 적이 있으나 약 100년간 실제적으로 그들의 식민지로서 지배했다. 元의 본도 지배의 종말은 崔瑩 장군의 牧胡 토벌과 그 성공이었다(恭愍王 23년, 1374).

元은 그 지배동안에 몽고마를 水上坪(城山邑 水山里)에 방목하여, 본도를 元나라 목장으로 삼았다. 제주목장은 元帝國 판도내에 설치된 14개 목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元에 소속된 말만 하여도 2.3萬頭가 있었다 한다. 이때부터 본도는 良馬 산지로서 유명해졌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주목장 설치의 곧 하나의 새로운 생산양식인 목축경제 도입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본도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일대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조선왕조는 그 開創(1392)과 더불어 본도의 內地化 정책을 추진했다. 屋主·王子 칭호는 太宗 2년(1402)에 폐지되고 左右都知管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世宗 27년(1445)에 폐지됨에 따라 屋主·王子의 계승 전통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世宗代에 특기할 일은 제주도 출신의 고급관인 高得宗의 건의로 말미암아 漢拏山 주변에 처음으로 목장 돌담이 축조되었다. 제주목장은 成宗때에 이르러 北部 지역 6개 所場, 남부 지역 대정 2개 소장과 정의 2개 소장, 합계 10개소로 분할 관리되게 되었다.

中宗은 三姓始祖가 출현했다고 하는 성역인 毛興穴 주위에 돌담을 두르고 三姓氏 후예들이 봄과 가을에 祭祀를 지내도록 조처했다¹¹⁾ (同王 21년, 1526).

본도 인구가 世宗朝(1419-1450)에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민이주가 內地 북부지역으로 대량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거꾸로 본도 주민의 대량 감소를 일으키자, 이번에는 본도인의 出島를 금지하며 아울러 內地人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出島禁令이 국법으로 내려졌다(仁祖 7년, 1629). 특히 본도 부녀자의 출도는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이렇게 되자 본도인은 왕조말기까지 두 세기 동안 좁은 곁해고도 속에 윤택하게 되었다. 이 금지령은 본도인으로 하여금 조선왕조 최후까지 대외적 교역 등 모든 경제활동, 문화적 교류를 봉쇄하게 되어 본도인의 경제문화적인 낙후성의 큰 원인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통치체제가 그 후기(19, 20세기초)에 와서 극도로 해이해지자 본도에서 본토처럼 여러 차례로 대소규모의 반란들이 터졌다. 그중에서 國役體系와 관련되어 일어난 民擾 범주에 속하는 소요 사건들로서 姜悌儉의 亂(哲宗 11년, 1860), 庚寅民擾(高宗 27년, 1890), 房星七 民亂(光武 2년, 1898) 및 李在守의 亂(光武 5년, 1901)들이 있었다. 이렇게 내우외란에 시달리던 조선왕조가 일본에 합병되어 그 식민지로 전락되자, 조선왕조의 통치지역의

11) 金奉鉉, 《濟州島歷史誌》 僑文社, 1960, pp.11~24에서, 삼성신화는 고려조 이후 高氏族이 본도의 최고 지배자로 등장하게 되자 지금까지 부족발생의 전설을 신비화하여 저들의 제보로 조작한 것이다. …… 이것이 후에 본도에서 조선왕조의 봉건질서의 유지에 정치적 도구로 삼겨되어 三姓祠의 三姓神 숭배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의 논리는 三姓神話란 조선후기의 조선왕조의 봉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석·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일부분을 구성했던 본도도 운명을 같이하여 이민족의 지배와 탄압 속으로 들어갔다.

Ⅲ. 兩地域의 歷史運動의 特性

양지역의 그 母集團들인 한반도와 일반본토와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이 본도와 오키나와의 역사운동과 그 방향을 일차적으로 그리고 일정하게 규정하였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필자도 문명과 역사에서의 지리적 결정론을 전적으로 긍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과 시대에서 어떤 역사존재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부인 못할 일일 것이다.

본도의 중심인 제주시는 한반도 남단 지점들, 곧 완도·목포·부산과는 각각 90km, 140km, 300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나, 일본 후쿠오카(福岡), 중국 上海와 더불어서는 각각 약 350km, 528km 정도로 떨어져 있다. 본도는 주위의 여러 지점들 중에서 특히 한반도 남부의 지점들과 심히 근접되어 있다. 이런 한반도에 편중된 본도의 지리적 위치는 그 역사운동을 일차적으로 한반도로 定向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키나와섬의 중심지인 나하(那覇)市는 일본 九州는 남단과는 약 1,000km 이상의 거리인데 반하여, 중국 浙江省 温州와 臺灣 북단과는 각각 600km와 450km 정도로 떨어져 있다. 오로지 지리적 위치로만은 오키나와 역사운동은 중국 강남권에 속할 것 같으나, 오히려 원거리인 일본 문화권에 종속되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답은 東支那海에 활처럼 널려 있는 오키나와 여러 섬들 중, 오키나와 본도와 九州사이에 비교적 큰 섬들, 屋久島, 奄美大島, 德之島 등이 정점다리식으로 일렬로 분포하여 일본 九州와 연결시키고 있는 점에서 찾아질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필자는 역사운동의 주체자들인 인간이 자기가 속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그 극한까지 펼치려는 인간적 역사형성력이나 욕망과 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리적으로 보아 위와같은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뿐이다.

이런 소여된 조건들 안에서 본도는 上古 시대에는 해양의 소왕국으로 활동하다가 10세기 이후로는 한반도의 통일정권인 고려·조선왕조에 의해 그 郡縣으로 편입되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류큐 왕국은 그 지리적 조건, 즉 일본과 중국과의 중간 지점을 이용하여, 그 양자간의 中介貿易과 그 차액이익을 갖고 역사적 존재의 형성과 보전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된다.

류큐 왕국의 역사를 관철하는 큰 특징은 무역의 존재, 특히 중국 明과의 무역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키나와 역사운동의 출발을 규정하고 있었다.

오키나와 역사에서 철제 농기구가 木器·石器들을 교체하여 간 것은 14세기경 明國과의 무역에 의하여 풍부한 철자원의 수입이 가능한 이후였다. 그리고 철기보급은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켜 그 잉여생산물을 가지고 역사발전의 정체를 면할 수 있었다.¹²⁾

明國의 太祖가 洪武 5년(1372)에 류큐를 招諭했을 때에 오키나와 본도는 中山·南山·北山이라는 세 개의 領國들로 분립 상쟁하고 있었다. 이들 중 中山王 察度는 24년 동안 25회의 朝貢을 하고 있었다. 山南과 山北도 각각 8회씩 明에 사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入貢 回數의 다과는 3세력 부강의 반영임과 동시에 그 강약의 지표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새로운 기술문화가 각각의 세력을 보강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입 품목중에 철기종류가 희망되었다. 3세력중에 良港들을 기지로 하여 明國과의 중개무역에서 그 힘을 축적한 사시키(佐敷)주변의 尚巴志가 三山을 제패하여 오키나와 본도를 통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尚巴志 王統代는 63년간에 약 60회에 달하는 조공무역을 행하였는데, 대략 1年1貢이었다.¹³⁾

오키나와는 明國뿐이 아니라 朝鮮,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활발한 중개교역을 했다. 오키나와를 매개하여 明과 남방제국에는 일본의 刀劍·槍·甲 등의 무기류가 수출되고, 일본에는 남방제국에서 수입된 물품, 즉 蘇木·胡椒·円木·象牙를 비롯한 沈香·木香 등의 香物類가 보내졌다. 이렇게 오키나와는 明國, 南方諸國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매개하여 막대한 재부와 그

12) 新里惠二 其外, 《沖繩縣の歴史》, pp.29~30.

13) 앞책, p.41.

경제적 힘을 류큐 왕국의 존립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이런 재부는 이웃인 사쓰마 번의 탐욕을 자극하여 그 침입을 자초한 재난거리이기도 하였다. 덧붙여 둘 것은 오키나와에서는 고유한 화폐인 하토메전(鳩目錢)이 주도되어 중국·일본 화폐와 더불어 사용되었다. 이것은 중개무역과 그 잉여재부의 기본 힘에 관한 오키나와인의 깊은 관심의 상징표현이었다.

류큐왕국은 중국으로부터 冊封을 받고 있었다. 中山王 武寧은 明國 成祖로부터 冠帶衣服과 함께 왕의 즉위를 인정하는 詔文을 처음 받았다(1404). 그후로 류큐 왕들은 왕위 즉위시에는 중국으로부터 詔文과 衣冠을 받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즉 류큐 왕국은 중국의 국제관계의 표현인 冊封體制속에 편입되었다. 이런 책봉체제가 당시 의미하는 바는, 류큐 왕권이 중국황제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빌어 국내적으로 지배권력의 위신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중개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 확보하려는 데에 있었다.¹⁴⁾ 하여튼 류큐 왕국은 한 독립세력으로서 국제사회에 행세하였으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쓰마 번의 島津氏에 의한 1609년 오키나와 침공과 정벌의 원인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그 중에 사쓰마 번이 당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위기를 오키나와 정벌과 그 중개무역의 이익을 장악함으로써 타개하려 했다는 설명이 유력하다. 실제로 시마즈氏는 오키나와 점령 후에 오키나와 본도와 여러 섬들은 檢地하여 공납액을 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류큐 왕국과 明國과의 무역에 사쓰마 번의 허가 감독을 일일이 받도록 지시하여 그 대외무역을 장악하였다. 류큐 왕국은 이렇게 사쓰마에 대한 막대한 공납과 중개무역의 이익금의 상납을 조건으로 그 외양적인 한 독립적 소왕국의 존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하여튼 오키나와의 역사형성과 진행운동은 주변지역들과의 무역활동과 그 잉여축적이란 원동력에 의해 움직여졌다고 하겠다. 오키나와는 동지나해에서 하나의 경제적인 힘이었다.

上古시대의 본도는 중국의 화북·강남지방·황해·한반도의 남해안 및

14)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의 표현인 冊封體制가 갖는 의미는 西嶋定生, 〈中國 古代國家と東アツア世界〉, 東京大, 1983, pp.579~678 참조.

일본 九州를 연결하는 해운무역에 활동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한 해양 소왕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에 고려왕조 그리고 조선왕조라는 통일정권이 나타나자, 탐라왕국의 해양성과 독자성은 점차 부정되었으며, 한반도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어 갔음을 누차 상술했다. 고려왕조 이후로 본도 역사운동을 定向해온 것은 한반도의 중앙집권 권력과의 관계였다.

고려왕조에는 조선왕조에서는 백성들은 중앙집권력의 질서형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통 租稅·貢賦·力役의 세가지의 國役을 부담하였다. 본도 인민은 국역체계 중에 특히 왕궁·관부의 수요 충당을 위해 부과된 농수산물 각종 토산물 공납에 매몰된 생활을 보냈다.

이런 토산물 상납과 징수과정에서 얻어지는 차액이득을 둘러싸, 그 최대치를 노리는 京來官과 그 하수인격인 上豪들을 한편으로 하고, 최소한을 바치려는 직접생산대중인 백성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두 힘들 사이에 첨예한 拮抗 대립관계가 본도 역사운동에 접철되어 있다. 이런 반란 기사가 본도 역사기록과 오키나와의 그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¹⁵⁾

고려때만을 보더라도, 良守의 모반(毅宗, 22년), '耽羅叛'의 기사(明宗 16년), 煩守 등의 반란(神宗, 5년), 文幸奴의 반란(元宗 8년) 및 使用 등의 소요(忠肅王 5년) 등이 있었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주로 왕조후기에 백성 저항이 집중되었다. 姜悌儉 등의 농민폭동(哲宗, 13년), 金志 등의 民擾(高宗 27년), 宋啓弘 등의 민란(高宗, 33년), 房星七의 亂(光武 2년) 그리고 李在守의 반란(光武 5년)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런데 본도 백성의 저항운동의 특색은 한반도 본토의 그것들과 그 시기와 시대를 거의 같이하고 있었다. 武人執政 개막과 더불어 전반적인 중앙집권 질서가 혼란해지자, 농민들은 주로 明宗·神宗代에 집중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본도인의 소요도 그런 무신정권기의 민란의 영향 아래서 그 한 부류로 볼 수 있겠다. 조선왕조 후기, 哲宗 13년(1862)에 발생한 姜悌儉 등에 의해 야기된 농민폭동도 그때

15) 江戸時代 300년간에 일본 본토에서는 약 3,000건 정도의 백성반란이 있었던 반면에, 오키나와에서는 같은 기간중 백성반란이 전혀 없었다. (新里惠二, 《沖繩史を考ふる》, 勤草書房, 1978, p.47.)

전국에 걸쳐 모두 70여회에 달했던 농민봉기, 즉 壬戌民亂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어난 房星七 또는 李在守 등이 주도한 민란들도 그 시기적으로 보아 본토의 甲午 농민 혁명운동(1894)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도에서 발발된 민란들의 의미는 대략 다음같이 설명될 수도 있다. 개인 또는 집단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일력을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그 지역에 안정된 질서를 부과하는 왕조국가의 중앙집권 권력은 그 반대급부로서 공과금을 직접 생산대중에게 강제로 부과하였다. 곧 고려왕조이거나 조선왕조에서거나 田租·貢物·力役을 주된 내용으로 한 國役體系가 생산대중의 재생산 조건인 안정된 대내외적인 질서의 유지와 보존의 대가로 백성에게 의무지워진다. 이때에 본도에서 질서 부여자인 京來官과 그 동반자인 土豪들이 직접생산자들인 백성과 토산물 공납과 그 잉여물품 징탈 때문에 침해하게 대립되었다. 양자간에 관례적으로 유지되던 미묘한 균형이 깨어졌을 때에, 백성대중은 그 원상회복과 수정을 위해 맹렬히 저항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란들이다. 하여튼 이런 제주민란들의 의미는 본도인의 생활 전반이 본토의 중앙집권 권력의 구조역학과 상호 얽혀서 운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와 본도 양지역의 역사운동을 비교해 보면, 오키나와 역사행보는 그 형성과 종말이 다같이 대외적인 중개무역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류큐 왕국은 중개무역과 그 경제잉여를 가지고 사쓰마 번의 탐욕과 약탈을 채우면서 한 해양 소왕국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해 갔다. 그 독립성이 중국과의 冊封體制에의 편입이며, 오키나와의 독특한 통치기구·신분제도 등의 문화유산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도 역사운동은 上古시대에는 해상 무역활동을 그 존재의 중심으로 하여 오키나와의 역사운동과 비슷하게 그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왕조 이후에 본도는 본토의 한 郡縣으로 편입되어 그 해양성과 자율성을 상실하자, 그 역사는 주로 본토의 중앙집권권력의 구조와 운동에 연루되어 전개되었다. 그리고 양지역의 역사운동의 이런 차이는 흔히 말해지는 역사활동의 주체로서 인간보다도 더욱더 궁극적이며 일차적인 자연적 조건들, 특히 지정학

적 위치와 장소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V. 兩地域의 時代區分 問題

카알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서문에 ‘대체로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 및 근대 부르조아적 생산양식을 경제적 사회구성체가 진보해가는 시기들로서 제시할 수 있다’란 유명한 일절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나 일본 역사에서 그 시대구분의 논쟁을 보면, 마르크스의 이 언명을 인류역사 발전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또는 변형하면서 그 아시아 일원으로 그 역사의 독자성을 추출할 수 있는가란 문제로 그 초점을 모으는 학파와 역사 연구자들이 있다.¹⁶⁾ 그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도 각 시기의 구체적인 성격규정과 특징을 둘러싸고 끝없이 스콜라적인 논의가 반복된다. 또한 그들은 상술한 바의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 및 근대부르조아적 생산양식이라는 역사의 계기적 발전론을¹⁷⁾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것을 세계사의 기본법칙으로 파악 승화한다. 그리고 소위 세계사의 기본법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음과 그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찾는 작업을 가장 과학적 합리적인 역사연구의 근본 목적으로 자임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기본법칙’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 갖는 강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성이다. 한 예로서, 이른바 각 단계중에 ‘봉건시대’를 우리나라 역사에 설정하는 의도에 관해서 李榮薰은 다음같이 지적한다. 곧 ‘기본법칙’ 그 자체가 제출하는 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건설이란 장기적 방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가 식민지의 자본주의 발전을 억압하고 봉건제도를 구조적으로 온존시킨다는 현실 인식에 이중 규정되어 있었음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계하에서

16) 姜哲哲,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에 대하여” (《歷史學報》 31, 1966); 永原慶二, “時代區分論”, 《講座日本史》 9, 東京大, 1978.

17) 마르크스 진영내부에서도 이런 계기론적 발전론에 회의를 품고, 並列의인 발전론의 주장이 있다. 임지현, “마르크스의 동양사회관” (《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1990, pp.185~200 참조.

‘봉건제도’는 단순한 역사학적 개념으로서라기보다 현실 변혁의 대상과 변혁의 단계적 성격을 규정하는 그 정치적 실천적 의의로서 보다 중요시되었다고 비판한다.¹⁸⁾

이렇게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역사적 관철과 그것에 의한 역사사실의 해명이란 궁극적으로 사회·공산체제의 계획과 완성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실천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된다. 필자는 이런 ‘기본법칙’이란 大命題는 필연코 역사적 사실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검증과 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계사의 ‘기본법칙’이란 하나의 선형적인 가설과 가정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때에 그 검증수단으로서 지방사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제 예로서 유럽 각지의 지방사 연구들은 한때 매우 강력하여 수많은 저서, 논문과 강연들에서 구체화된 다대한 일반적 개념들을 타파하는 데 크게 유용했다고 한다.¹⁹⁾

상술한 필자의 논의는 역사 시대구분 문제에서 상식적으로 언급되는 古代奴隸·中世封建·近代 資本主義라는 도식 자체가 강한 정치적 실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매우 선형적인 개념장치로서 실제 역사연구의 場에 무차별 무비판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자는 데에 있다. 이런 상황을 유념하면서 본고의 주제인 오키나와와 본도 역사의 시대구분 문제로 돌아가자.

우선 오키나와의 경우에 시대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 분석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오키나와 역사의 시대구획은 보통 방법으로서는 王統別로 시대를 구분했다. 한 예로 (1) 舜天王統, (2) 英祖 왕통, (3) 察度 왕통, (4) 尚思紹 왕통(第一尚氏), (5) 尚門 왕통(第二尚氏)의 구분이 있다. 이중에 尚門왕통은 19대=400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대개 전기와 중기, 후기로 소구분된다.²⁰⁾

仲原善忠은 이런 왕통별의 시대구분을 이른바 지배자 중심의 역사관의

18) 이영훈,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p.600.

19) Pierre Goubert, "Local History", *Deadalus*, Winter 1971, pp.113~127.

20) 新里惠二, 《沖繩史を考える》, p.31.

한 출현이라 비판하면서, 이것의 대안으로 의식적인 시대구분으로서 새로운 학설을 제창하였다. 즉 (1) 原始社會(漁撈時代=3~4세기), (2) 古代社會(部落時代=5~11세기), (3) 封建社會前期(按司時代=3山時代, 12~15세기), 封建社會後期(三國時代=15~19세기), (5) 近代社會(沖繩縣時代=19세기~현대)란 관점이다. 이 시대구분에 의해 오키나와 역사도 세계사라든지 일본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고대·봉건·근대라는 시대구분의 기준이 마련되었다.²¹⁾

그러나 新里惠二는 오키나와 역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봉건시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본질적 특징으로 地方分權과 그 지역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무장집단, 즉 武士의 존재를 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士族(유카추)은 무장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首里的 중앙권력에 의존한 文人 관료집단이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의 士族은 어디까지나 고대귀족이었으며, 봉건적인 무사집단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독자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지방적 토대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 소지역의 세력가인 地頭들은 영내에서 自裁權과 自律權을 갖지 못하고, 모두 首里왕부의 지령에 의해 일이 처리되는 통치양식이었다. 또한 地頭들의 토지 영유는 세습제가 아니었으며, 중앙권력인 首里왕부의 位階서열의 순번으로 교체되고 있었다.²²⁾ 이렇게 오키나와 역사에서 首里 왕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봉건제도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 흔적도 없었다.

新里惠二는 그의 저서(註 20)에서 오키나와의 역사를 (1) 先史時代, (2) 按司의 발생(6,7세기~13세기), (3) 英雄時代(14세기), (4) 初期古代國家의 成立(15세기), (5) 古代專制國家(15세기~17세기 초두), (6) 封建時代에의 傾斜(17세기 이후), (7) 島津의 琉球侵入과 琉球處分の 評價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新里의 이런 견해는 경청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봉건제도에 관한 여러 설명 도식들 중에 봉건제도를 무장된 무사들이 개인적인 복무 대가로 토지를 수여하는 지도자에 규합되는 군사적·정치적 제도를 기술하는 하나

21) 앞 책, p.32.

22) 앞 책, p.39~44.

의 전문용어라고 하는 유력한 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는 봉건 제도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부 유럽이란 제한된 영역에서 발생된 일련의 특수한 제도들을 이른다. 다시 말하면, 10~13세기의 유럽 봉건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결여, 정치권력의 지방단위에로의 이전, 家臣 제도와 封土로 연결된 騎馬武士의 귀족정에 의한 영역통제 및 토지가 재부의 주요형태를 구성하는 경제 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²³⁾ 이런 관점에서는 마르크스의 계기적 발전단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연구자들의 봉건제 이해는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그들은 봉건제를 자본주의 발생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보편적인 역사단계로 간주한다. 또한 그들은 봉건제의 핵심요소를 봉건영주가 농노로부터 폭력, 습관, 법률 등 經濟外的 強制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노동, 현물 또는 金納地代의 착취에 있다고 한다. 만일 이렇게 착취, 피착취 제도가 봉건제의 내용이라면 그 범주는 무한하게 확대되어 무의미해져 버린다. 사회구성상의 적대적 계급간의 착취제도는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중국·인도·중동 등 지구대적으로 발견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법칙'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봉건시대'의 일국사 또는 지방사예의 적용과 실정은 그 자체로서 무의미하게 된다.

앞서 말한 이유로 해서 본고는 사마츠氏의 류큐침입 이전의 류큐왕국을 봉건사회가 아니라 고대사회로 시대구분하는 新里의 견해를 지지한다. 다음은 류큐의 고대왕국의 사회 성격과 그 규정이 문제가 된다. 新里는 이 고대왕국을 상부국가권력이 사회구성 저변의 공동체관계에 매몰된 농민을 착취하는 總體的 奴隸制로 성격규정을 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체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그 멸망 순간까지 유지되었다 한다.²⁴⁾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가 말하는 고대사회라는 마르크스의 발전단계인 노예제 생산이 사회의 지배적 생산양식인 古典古代 노예제가 아니라, 소공동체 기본경영을 토대로 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사회구성체를 염두에 두

23) Peter Duus, "Feudalism in Japan" Alfred A. Knopf, New York, 1976, pp.3~14.

24) 新里惠二, 《沖繩史を考ふる》, pp.76~77.

었다는 점이다.²⁵⁾

류큐왕국의 이런 고대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강제적 경작지 분할, 즉 地割制의 존재였다. 백성의 경작지는 오사스케치(授田)라 하여 전 경작지의 약 70~80%를 점유하였다. 授田은 촌락이 공유하여 일정한 시기에 촌락내에서 '割替'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일종의 강제노동에 의하여 경작되었음이 류큐왕국의 농민지배의 큰 특징이다. 노동과정의 상세한 감시 감독과 그 잉여생산물의 무자비한 착취 등의 관점에서 보면, 류큐 왕국은 마치 首里王府의 直營農場이었다.²⁶⁾ 필자는 노동과정과 잉여착취에서 사회의 軍義的編制가 오키나와의 생산대중을 근본에서 억압하여 그 반란의욕을 좌절시킨 것이며, 거기에 백성 봉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키나와 역사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역사 行歩가 우리의 통념 밖이라는 것이다. 곧 석기시대의 하한이 12~13세기까지 이르렀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 高宗朝의 몽고 침입 때까지 오키나와는 식량채집경제를 기본생산양식으로 하는 장구한 신석기시대의 잠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신석기 말기부터 농업을 사회생산의 중심형태로 하는 지역적인 소공동체들이 오키나와 본도에 출현하였다. 이런 지역 소공동체들은 9~13세기에 「아지(按司)」라고 하는 首長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그 지배방식은 주로 聖域에의 공동체적인 제사에 매개된 것이었다.²⁷⁾ 또한 아지들은 '구수쿠(城)'라는 지배적인 거점을 마련하여 권위를 자랑하며 서로 항쟁을 반복했다. 이들은 13세기에 三山이란 세 세력집단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이 중 中山출신의 尚巴志가 三山을 통일하였으나, 金丸이 정권을 장탈하여 第二尚氏 왕조를 首里에 세웠다(1458).

문제는 9~10세기부터 출발하여 尚巴志가 15세기초에 三山을 통합하여 중앙집권 왕조를 세우기까지 5백년 이상의 소위 쿠수쿠시대의 사회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류학 이론을 원용하여 일단 그

25) 近藤哲生, 《經濟史入門》, 有斐閣, 1979, pp.15~18.

26) 新里惠二, 앞 책, pp.57~60.

27) 高良倉吉, 《沖繩歷史論序說》, 三一書房, 1980, pp.40~41.

사회성격을 首長社會(chiefdom)로 규정해 둔다. 首長社會란 평등을 그 기본구조로 하는 群集部族社會와, 그 구성원리가 심각하게 불평등과 계층화를 토대한 초기국가 사이에 존재한다고 설정된 과도기적 사회단계를 의미한다. 수장사회의 理想型(ideal type)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는 학자가 있다.²⁸⁾

곧 首長은 (1) 가장 양질의 농토소유, (2) 신성한 家系 출신, (3) 공동체가 산출한 잉여획득의 정당화, (4) 從者들의 수행, (5) 종교적인 전문가인 司祭, (6) 자매들과의 혼인: 순수한 가계유지 및 (7) 사치와 威光品(prestige goods)에 의한 지위장식 등의 특징을 일반인과는 달리 갖는다. 이렇게 이념형으로 제시된 수장사회이 성격규정은 이 시기의 오키나와 아지들의 그것과²⁹⁾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런 首長社會가 가나마루(金丸)의 第二尚氏 왕조 창설 때까지 약 5백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그 다음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고대왕국이 출현했다. 그런데 이 고대왕국의 사회성격은 그 소멸될 때까지 '아시아적 생산양식' 범주에 들었음은 앞서 말했다.

상술한 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마르크스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이란 대명제를 일단 접어두고 오키나와 역사운동의 행보 그 자체를 관찰했을 때에, 거기에는 (1) 채집경제와 평등을 사회구성원리로 한 先史시대, (2) 과도기적이며 首長에 의해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首長社會, (3) 불평등과 사회분업을 토대로 편제된 고왕국시대란 역사운동의 발자취가 나타난다.

본도의 경우, 지금까지 발행된 다섯 개설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대구분 논의라든지 논의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본도 역사시대의 구분을 본도에서 흥망된 왕조들과 적당히 짜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저서들과 그것들의 시대구분에 관계된 章들을 뽑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金宗業, 《耽羅文化史》의 탐라의 上古史, 三國時代의 탐라, 고려시대의

28) K.V. Flannery, "The Cultural Evolution of Civilizations," *Human Ecology* Duxbury Press, 1976, pp.96~97.

29) 高良倉吉, 앞 책, pp.19~82; E.R.Servic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2), p.143에서, 수장사회는 ① 경제·사회·종교적 활동을 조정하는 중심점의 존재, ② 전문화와 재분배 기능의 중대성의 점에서 부족사회와 다르다 한다.

탐라, 조선시대의 탐라; (2) 김봉옥, 《제주통사》의 외국과의 관계, 고려 때의 제주, 조선 때의 제주, 일제 때의 제주; (3) 金泰能, 《濟州略史》의 先住民時代의 제주, 上古시대와 중세시대, 고려시대의 제주, 이조시대의 제주, 현대의 제주; (4) 제주도문화공보실편 《濟州道誌》(上), 제1편 역사의 上古史, 中世史(고려 전후기), 近世史(조선전후기), 最近世史(조선말기), 現代史(日帝時代); (5) 金奉鉉, 《濟州道歷史誌》의 백제와 제주도와와의 관계, 신라와 제주도와와의 관계, 고려조하의 제주도, 이조하의 제주도, 외래세력의 조선침략 과정하의 제주도, 반식민지 과정하의 제주도 농민봉기, 일제의 조선강점하의 제주도로 시대가 구분되어 있다.

이 저서들의 시대구분에 대한 공통된 태도는 본토 왕조별 시기에 본토 역사의 그것을 적당히 편의적 배당을 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道誌》(上)에서는 上古史, 中世史, 近世史 등으로 색다른 시대구분 형식을 취한 것 같으나, 그것은 형식뿐이지 내용은 고려·조선의 전후기·조선말기 등으로 실제 왕조별 구분이다.

이런 왕조별 시대구분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이라든지 지배자 중심이므로 그것을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관련해서, 일국사나 지방사를 법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흔히 비판된다. 바꾸어 말하면 시대구분의 표준은 어디까지나 고대 노예제·중세 봉건제 및 근대 자본제라는 사회구성체의 개념이며, 이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일국사 또는 지방사에의 관철 여부를 해명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본연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왕조별의 편의적인 시대구분은 세계 사회구성체의 개념과는 무관하므로 지극히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연구태도이다라는 비판이 세계사의 '기본법칙'과의 공통된 입장이다.

앞서 이 글에서는 이런 '기본법칙'의 배후에는 한 특정한 정치적 실권, 즉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과 실현이라는 동기와 목적이 내재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목적과 실현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기본법칙'에 동의하지 않는 역사 연구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선형적 선언적 명제에 불과하게 된다. 오히려 역사사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본법칙'이며 그것이 역사사실에 조응하지 않거나 그것의 해명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방기하든지, 그 '기본법칙'의 위신과 중압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으면 최소한 무시라도 하는 것이 역사 연구자의 객관적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한다. 한마디로 지방사 또는 일국사의 역사현상을 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소산인 마르크스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이란 프로 크루스테스 침상(procrustean bed)에 맞춰 절단하지 말자는 의미이다.

이글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대한 회의와 부정은, 그것을 무비판적 무 차별적으로 지방사 연구에 적용하여 그것을 해명하려는 방식으로는 본도 역사운동의 시대구분에 긍정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구태의연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왕조별 시대구분이 실제로 역사사실의 검증과 확인이란 관점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선입견적인 개념이거나 범주장치를 떼고 본도 역사운동의 실제적 전개상황을 보면, 그것의 생활실천은 고려왕정의 設郡(숙종 10년, 1105) 이래 본토의 중앙집권 권력의 의지 또는 국역체제와 불가분하게 얽혀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부정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본도 역사전개는 고려초 이래 중앙정부의 일개 지방군현으로 역할하여 왔다.

상술한 역사사실이 본도역사의 시대구분 문제에서 갖는 의의는 처음부터 상부구조의 중앙집권력의 지방분권화를 출발 전제로 하는 본래 의미의 봉건제의 본도에서 존재 여부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방에 파견된 京來官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전체에의 질서부여의 기능을 한 중앙 국가권력과 그 질서 유지비를 국역체제로서 부담하는 백성층의 二項的 길항·대립관계가 항상 문제된 본도에서는 봉건제 논의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제주인의 삶은 본토 중앙집권력의 영상에 그늘져 있었다. 이 사실을 좀더 부연설명하자. 농민대중은 항상 국가권력과의 이항적 대립은 단순한 상부구조적인 京來官과 그 지배체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부구조적 생산관계에서의 갈등에서 유래되고 있었다. 조선말기 제주도 민란의 원인에 관해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곧 제주 官衙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國有地 火田을 오히려 장려하는 한편 스스로도 국유지인 牧場土 및 산간지대의 休閒地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屯田을 설치하였고 이를 농민에게 借耕시켜 火田 경작시켰던 것이다. 관아에서는

여기에 地稅보다 훨씬 부담이 큰 地代(租)를 징수하여 부족 경비를 충당하면서 화전개간을 위한 노동력(賦役) 수탈 및 地代 수탈을 자행하였고, 이것이 종래 빈발했던 민란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한다.³⁰⁾ 또한 그는 지적하기를 이 火場稅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公土에 대한 소작료를 말함이니, 여기에서 바로 제주민란은 봉건국가를 대상으로 한 抗租 투쟁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하여, 그후의 민란들, 즉 1890~91년의 민란, 1894년의 戊戌民亂 및 辛丑民亂도 기본적으로 이 地代를 통한 수탈에 대한 점에서 軌를 같이하고 있고 이는 곧 제주민란의 특성이라 한다.³¹⁾ 이런 본도민란의 특성은 본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토의 전반적인 민란의 성격을 반영하였다고 하겠다. 곧 19세기 민란은 국가의 생산관계적 성격, 즉 국가적 토지소유의 실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 역사적 성격이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란의 진정한 역사적 성격은 국가적 토지소유 및 그 노골적 형태인 전제권력에 대한 사적 토지소유의 전반적 성취를 물질적 기초로 한 농민일반의 적극적인 물리적 저항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된다.³²⁾

그런데 농민의 봉기와 타도 대상이 京來官만이 아니라, 地方在地 세력인 土豪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여기에서 간단하나마 토호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본토의 역사상에서 들여져야 한다. 본토 역사상, 토호배의 한 중요한 형상은 직접생산대중인 백성에 대한 억압과 행패이었다.³³⁾ 토호의 이런 역할과 공포적 행위는 다음같은 일반론으로부터 그 일단을 이해할 수 있다. 곧 아무리 전제화된 왕조의 중앙권력일지라도 그 획일적인 집권력을 그 전지배영역에 관철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근대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저급한 생산력의 물질적 조건들, 그중에서 특히 병참적 한계를 생각해 보면, 지방에서는 分權된 下部構造權力(infra structure power)이 실제로 사법집행, 군사조직과 경제적 재분배를 관장했으며, 전제

30) 강창일, "1901년의 濟州民亂에 대하여; 韓末 天主教의 性格과 關聯해서", (未發表 原稿) pp.51~52.

31) 앞 논문, pp.64~65.

32) 이영훈, <조선후기사회경제사>, p.241.

33) 김봉현, <제주도역사지>, p.108 및 pp.156~157.

적 중앙권력은 지방의 하부구조 권력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³⁴⁾

이런 관점에서는 전제·획일적인 질서의 상징자인 京來官은 그 실질적인 지지세력인 '토호배'라는 중간고리 없이는 백성의 토산물, 그 잉여산물 및 노동력 자체를 확보할 수 없었다. 토호들은 중앙과 지방의 양세계의 매개 역할을 통하여 그들 해당 지역의 생활실천을 실질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장악했다. 토호들의 이런 중간자적인 성격은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지방반란의 진압자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 유발자였다. 조선말기 房星七의 난리 때(1898)에 토호들은 朝天里에서 倡義所를 설치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던 반면에 李在守의 반란(1901)에서는 그 주도자들은 座首 吳大鉉을 狀頭로 하는 향촌 토호들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려 이후에 제주사회에서 상부구조인 국가권력이 본도의 모든 생활양식의 성격을 규정짓는 구성적 계기로 봤을 때에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한 단계인 봉건제는 본도 역사운동에서 그 위치와 장소를 찾을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왕조별 시대구분은 그렇게 비과학적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그 나름대로 시대구분의 도구적 유용성을 갖게 된다.

물론 왕조별 시대구분 중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본도 역사상이 꼭 같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왕정의 設郡으로부터 조선초에 左右都知管制의 폐지와 함께 屋主·王子의 전통단절 때까지는, 중앙 파견인 京來官과 일종의 하부구조 권력으로서의 재지세력인 屋主·王子는 상호 인정과 협조하에 본도 지배를 공유했던 시기였다고 생각된다(1105~1445). 이후에 중앙 집권력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토호세력의 지위는 중앙의 국역체제 집행을 위한 하수인 정도까지 점차 격하되어 있었다. 그 예를 보면, 조선말기의 본도 토호들은 제주관아의 말단 吏任職窠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다가 이에 못견뎠던 토호 梁濟海는 벼슬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別國을 세우려고 반란까지 일으킨 실정에 이르렀다.³⁵⁾

34) M.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170.

35) 權仁赫, "19世紀初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 pp.127~151.

본도 역사의 이런 중앙 집권력에의 편중을 다시 권력 일반론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자. 인간이 인간·사회·자연의 지배를 매개하여 인간의 목적을 추구 달성하고자 권력기술(power techniques)을 조직한다. 역사운동이란 이 경우에 이 조직된 권력기술의 시대별 증가라는 일단면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인접한 사람들과 협동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왕조)조직을 만들어 제삼자이거나 자연환경에 대항하여 그 공유된 권력을 높인다(集合的權力, collective power). 한편으로 권력은 A가 권력을 잡으면 B가 그것을 잃든지 또 그 반대도 성립되는 分配的인 성격을 갖는다(分配的權力, distributive power). 분배적 관점에서는 권력의 고정된 양만이 참가자들에게 분배된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관계에서 권력은 분배와 집합이며, 또한 착취와 기능이란 서로 상반된 양면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 점이 중요하다. 왜 대중은 강제적 협동관계를 그 특징으로 하는 국가(왕조)를 만드는 한편, 그것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가란 의문이 있게 된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대중은 생존을 위해 집합적 권력 조직을 원하기 때문이다. 반란은, 그들이 국가의 분배적 권력조직, 곧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의 중앙으로부터 해방을 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³⁶⁾

본도 역사행보가 본토 왕조의 권력조직의 시대와 더불어 점차 강하게 예속 편제되어 갔음에 관하여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다. 분배적 권력의 관점에서는 본도는 중앙 왕조와 시대의 하강과 더불어 점차 승부할 수 없는 일방적 경기를 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본도 전체가 중앙의 집합적 권력에의 참여와 매개를 통하여 인간사회와 자연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기술과 그 재분배를 점차 많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본도인의 중앙왕조에의 편중과 그 지향은 그 독립성에서 오는 불안과 고립을 방지하고 대신 집합권력의 안전과 편리를 택한 한 생존 방편의 표현이었다 하겠다.

남은 문제는 탐라군 설치이전의 본도 歷史像이다.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의 바위그늘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로 신석기 말기(2,000-1,500 B.C.)부터 사람이 살았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들로

36) M.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pp.6~7.

支石墓, 石槨墓, 貝塚 등이 있으며, 유물로서는 孔列土器를 위주로 한 B. C. 2세기초~A. D. 3세기의 無文土器類가 출토된다. 그중 축조시기가 기원 전후로 추정되는 支石墓群이 제주시 용담동·오리동·삼양동 및 북제주군 光舍里 등에 분포되어 있음이 주목된다.³⁷⁾

無文土器類의 유물의 존재는 이곳에 농업경제가 영위되었음과 그로 인하여 사회적 잉여가 일정한 집단에 축적되고 있었음을 동시에 암시해 준다. 그리고 기원 전후해서 축조된 지석묘군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 모종의 분배·집합적 권력조직의 출현을 시사한다. 환언하면 정치적 권위와 권력을 가진 중심점이 지석묘들의 주변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중심점들은 차츰 자체내의 역학관계로 인해 3개로 축소되었다고 생각된다. 3개의 중심점들 또는 그 연합된 세력은 발해·황해·한반도의 남해의 해양문화와 더불어 해연관계를 맺어 무역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증거는 제주시 산지향 축항공사시(1928)에 발견된 銅鏡1개, 劍의 부속장식 1개, 五銖錢 4개·大泉五十 2개·貨泉 1개의 유물이다. 오수전은 B. C. 118년부터 주로 사용되었으나 貨泉은 王莽時代(9~23 A. D.)에서만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유적의 연대 결정에 유리한 역할을 한다. 특히 10년정도 유통되었던 중국화폐인 이 화전은 기원초에 한반도 북부·제주도 산지 및 일본의 關西 지방까지 분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해운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고 신속한 교역형태였던가를 잘 반영해 준다.³⁸⁾

이 중심점들은 어느 시기에 상호 연합하게되자 高良夫의 三神人으로 대표되는 지배부족 신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 탐라신화는 父系血統에 기초를 두고 있을 가능성과 3세력집단간에 長·次·三으로 표현되는 부계혈통 집단의 세력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정해 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 탐라신화는 사회편제가 부계중심의 혈연공동체를 탈피하여 정치적 연합체적 성격을 띤 보다 큰 지역중심의 地緣共同體로 이행하는 현상을 신화를 통해 형

37) 李清圭, "제주도지방의 선사문화와 동굴·비위그늘 주거지", 《第四紀學會誌》 1, 1987.; "남한지방 무문토기 문화의 전개 및 공렬토기 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회지》, 1, 1988.; "제주도 지석묘 연구" (1), 《탐라문화》 4, 1987.

38)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p. 34.

상화한 것으로 上古 탐라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³⁹⁾

제주시 용담동 웅관묘역내의 석관묘에 부장품으로 장검, 단검, 창, 끌 모양의 무기, 도끼 등이 출토된다. 이 부장품의 종류로 보아서 석관묘의 被葬者와 웅관묘의 그것 사이에 존재하는 신분 또는 계급의 차이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다.⁴⁰⁾ 필자는 출토된 무기류의 부장품은 바로 실전용으로 사용되었음과 동시에, 그것들 자체로서 묘역의 주인공 신분을 상징하는 威光品的 효능이 훨씬 강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여기에서 아울러 지적할 것은 지석묘·석관묘의 축조물 자체가 그 지역의 공동체의 규모와 권위나 공동체를 體顯·代表하는 수장의 그것들을 상징·표현하는 기념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상술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 권위 상징인 위광품과 기념물의 존재, 장거리 해상무역을 통한 해외 문화·지식·기술의 획득능력과 재부 축적의 가능성,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창출 및 전시대를 대체한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의 농업경영과 그 잉여산출의 개연성 등은 이곳에서 서력기원을 전후해서 획기적인 사회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었던 지표들이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던 세 개의 중심점들 또는 그 연합체는 앞서 언급된 首長社會(chiefdom)의 성격규정과 많은 점에서 합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원전후의 이런 사회로부터 고려초 군현설치때까지의 약 천년 기간을 수장사회 단계라고 일단 규정해 둔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일본·한반도의 識字들은 이런 단계의 제주도의 우두머리를 탐라의 '王' 또는 '星主', '王子' 등으로 칭했다.⁴¹⁾

이 시기의 탐라사회의 주재자들은 대외적으로 국제관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거나 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은 백제와의 朝貢 관계의 체결과 백제의 제일위 관직인 佐平의 획득이라든지 백제 멸망후 일본에의 새로운 동맹관계 설정에의 수차례 시도와 좌절 등에서 잘 나타났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이 단계의 탐라사회

39) 앞 논문, pp. 17~19.

40) 앞 논문, p. 32.

41) 이런 관점은, 寬敏生, “耽羅王權과 日本” 〈탐라문화〉 10, p. 260을 참조.

는 수장사회의 결점, 즉 하나의 강력한 지배자에 의한 통합체가 아니라 세 개의 느슨한 연합 구성체였다는 약점으로 인해서 그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탐라사회는 내부적인 지역 통합성의 불완전, 곧 지배권력의 취약성을 내포하면서 천년동안 계속되다가 고려왕정의 명령일하에 그 군현으로 편제되었다. 탐라사회가 여기에서 아무런 저항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사회 내부적으로 이런 결점과 취약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제주 역사시대 관하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1) 先史時代(구·신석기), (2) 首長制社會(耽羅王 시대, 기원전후~1105) (3) 고려, 조선왕조의 郡縣時代로 구획할 수 있겠다.

끝으로 양지역 역사운동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오키나와의 신석기는 13세기까지 하강하는 데 반하여, 본도의 그것은 대략 기원 전후해서 그 막을 내리고 있다. 首長制의 경우에는 오키나와의 그것은 15세기까지 그 주체가 계속되었으나 본도는 그 종말을 11세기말경에 맞이했다. 그후 각 지역의 역사행보를 보면 오키나와는 고대왕국체제를 완성하고 거기에 머물러 선 반면에 본도는 일찍이 본토의 역사현장에 입장했다. 본도 역사 진행에 비하여 오키나와의 그것은 역사사회구성과 그 운동면에서 훨씬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겠다. 대신 종종 문화적인 自己像(identity)과 그 독특성을 보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V. 맺음말

본도와 오키나와 양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었으며, 역사·문화적으로 동북아시아란 대문화권의 부분 성분들이었다. 따라서 양지역의 역사는 狹域比較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양지역 역사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본도에 관한 국내 역사연구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편견과 오류를 비판 반성함과 동시에 본도 역사의 특이성을 추적 확인하려는 데서 출발했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다. 이 논의과정중에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결과들은 대략 다음 같이 정리된다.

(1) 양지역은 각각 역사운동상에서 그 독특함을 펼쳐왔다. 오키나와의 경우에 그것은 항상 주위 제지역, 특히 중국의 明·淸 및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유지했다. 결국 해외무역과 그 잉여취득과 축적이 이 해양왕국 역사의 원동력이며 생존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도 역사의 전개는 上古時代에는 황해·남해안·발해 등의 해운무역에 왕성하게 참여하여 오키나와와 비슷한 활동유형을 보였다. 그러나 고려초기에 군현으로 편입된 본도는 한반도의 중앙권력과 그 국역체계에 구속되어 그 역사운동을 전개시켰으므로 고대에 가졌던 해양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2) 양지역의 시대구분에서 이글은 오키나와 역사를 先史 시대(B.C. 300 ~ A.D. 12, 13세기), 首長時代(9~14세기)와 古代王國時代(15세기 이후)로 세 단락지었다. 본도 역사의 경우도, ① 선사시대(구 신석기~기원 전후), ② 首長社會(기원전후~1105), ③ 고려, 조선왕조의 군현시대로 3시대 구분이 될 수 있었다.

(3) 이글에서는 마르크스의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한 단계인 '봉건제'를 비판 부정하였다. 그 대신에 평등한 부족사회와 심각하게 불평등과 사회분업을 원리로 하는 초기국가 사이의 과도단계로서 首長社會論을 하나의 理論型으로 도입했다.

(4) 양지역 역사운동의 원동력으로서 오키나와의 중개무역과 그 차액이득, 제주도의 상부구조로서 중앙집권력과 국역체계에의 속박 예측성이 2項的으로 대비 강조되었다.

또한 원래는 양지역 역사행보중의 큰 차이점 - 본도의 반란 빈발과 오키나와의 침묵에 관하여 추적 해명하려 하였으나 벌써 할당된 지면을 무리하게 초과하였으므로 다음 기회를 빌어 발표하겠다. 이글 논의 전개상 많은 억측과 오류를 범했을 것은 말할 필요없이 자명한 것이므로 독자제위의 비판과 질책을 감수하겠다.